

마을관리소를 통한 지역 사회서비스 활성화 패러다임 연구 : 근거이론의 적용*

A Study on the Paradigm of Local Social Service Activation through Neighborhood Management Centers

: Application of Grounded Theory

신수경**·이상헌***

Suegyung Shin·Sang-Hun Lee

■ 목 차 ■

- I. 서론
- II. 이론적 논의
- III. 연구방법
- IV. 지역 사회서비스 활성화 패러다임 분석
- V. 결론

본 연구는 마을관리소 사례를 통해 지역 사회서비스를 활성화하는 패러다임을 근거이론(grounded theory) 방법을 적용하여 탐색하였다. 이 연구는 시도 단위 마을관리소가 민관협력 모델일 때, 지역 사회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복지 확대와 사회서비스 증대에 따라 마을관리소 역할을 확대하는 요소를 탐색하고, 이를 통해 지역 사회서비스 활성화 패러다임을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민관협력의 다양한 유형을 관찰하기에 용이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4곳과 시흥시 동네관리소 3곳, 총 7곳을 연구 대상으로 정하여, 공무원, 중간지원 조직 담당자, 실무 책임자 등 18명을 심층 인터뷰하였다. 근거이론의 방법론적 논리를 바탕으로 1차 코딩(개방코딩)을 통해 12개의 개념을 범주화하였으며, 이후 지역 사회서비스를 활

* 본 연구는 박사 학위 논문 「마을관리소를 통한 사회서비스 혁신체계 연구: 근거 이론적 방법을 중심으로」(신수경, 2024)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구성하였음

** 제1저자,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연구위원(한신대학교 정책학 박사)

*** 교신저자, 한신대학교 평화교양대학·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

논문 접수일: 2024. 11. 7. 심사기간: 2024. 11. 7. ~ 2024. 12. 12. 게재확정일: 2024. 12. 12.

성화하는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해 2차 코딩(축코딩)을 실시하였다. 축코딩 분석 결과, 중심현상인 '마을관리소 역할의 확대 및 축소'를 시작으로, 인과적 조건으로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결합', '민-관 파트너십 구축', '마을자원 DB 구축', '마을활동 경력자 채용'이 조사되었다. 또한, 맥락적 조건으로는 '행정의 정책적 혁신 의지', '중간지원 조직의 지원',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량'이 작용하였으며, 마을관리소의 역할 확대 또는 축소를 위한 전략(작용/상호작용)으로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 '행정의 유연성', '체계적인 조직 운영 및 관리'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전략의 결과로 '활동의 보람과 주민의 역량 강화'가 촉진되었다. 이는 활동의 보람과 역량 강화가 지역 사회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며, 행정의 유연성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을 통한 체계적인 조직 운영 및 관리가 중요한 전략임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마을관리소가 지역 사회서비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조명하며, 지역 사회서비스 활성화 요소와 이 요소들의 패러다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주제어: 지역 사회서비스, 마을관리소, 동네관리소, 근거이론

This study examined the factors that drive the activation of local social services through the case of Neighborhood Management Centers, employing grounded theory as its framework. The research began with the premise that provincial-level Neighborhood Management Centers, functioning as public-private cooperation models, can enable and support community-led local social services. As welfare initiatives expand and social service needs grow, it becomes crucial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contribute to the activation of these services. To address this, the study analyzed seven sites: four Gyeonggi Haengbok Maeul Management Offices and three Siheung City Neighborhood Management Centers, all operating as provincial-level public-private cooperation model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8 participants, including public officials,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 staff, and field managers. Grounded theory methodology guided the analysis, with the first stage of coding (open coding) categorizing the data into 12 key concepts. These concepts were identified as potential drivers for activating local social services by enhancing the role of Neighborhood Management Centers. The analysis identified the central phenomenon as the "expansion and reduction of the role of Neighborhood Management Centers," shaped by various causal and contextual conditions. The causal conditions included: integration of local community networks, formation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development of a community resource database (DB), and hiring individuals with experience in community activities. The contextual conditions included: administrative commitment to policy innovation, support from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s,

and the capacity of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The strategies to expand or reduce the role of Neighborhood Management Centers involved; fostering the growth of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increasing administrative flexibility, and implementing systematic organizational operations and management. These strategies led to outcomes such as a sense of fulfillment among participants and enhanced capabilities of residents. The findings highlight that a sense of fulfillment and resident capability-building are critical for activating local social services. They also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systematic organizational management, supported by administrative flexibility and the growth of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as key strategies. This study underscores the vital role that Neighborhood Management Centers play in enhancing local social services. It also provides a detailed discussion of the factors that activate these services and the paradigms underpinning them.

□ Keywords: Local Social Service, Neighborhood Management Center, Gounded Theory

I. 서론

공공의 복지서비스는 사회보장 체계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 양극화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최근 사회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가족 구성의 변동으로 인해 사회서비스의 수요가 양적, 질적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1인 가구와 노령인구의 증가는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돌봄 체계의 한계를 드러내고, 사회적 돌봄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더불어, 산업구조의 변화와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심화로 기존의 돌봄 역할이 가족에서 사회 전반으로 확장되는 추세에 있다(김보영, 2019:45; 오단이, 2020:313). 그러나 현재 한국의 사회서비스는 취약계층임을 입증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 경직된 정책으로, 사회서비스의 접근성이 높지 않다(박세경, 2020:64). 이러한 상황은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주민 스스로 서비스 생산과 전달에 참여하는 지역 사회서비스의 확대를 촉진하고 있다.

마을관리소는 지역사회에서 노후주거시설 관리 및 돌봄까지 복합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혁신적인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관련 연구는 미비하다. 일부 단일 사례연구나 정책 연구보고서가 있지만 사회서비스로 확대되고 있는 역할에 주목하는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는 민관 협력형으로 사회서비스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모델 중 하나인 ‘마을관리소’에 주목하여, 마을관리소가 지역사회에서 수행하는 복합적인 역할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를 탐색하고, 이를 통해 지역 사회서비스 활성화 패러다임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근거이론 방법을 적용하여 시도 단위의 민관협력 모델 중 우수 사례이거나 특수 사례에 해당하는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4곳과 시흥시 동네관리소 3곳, 총 7곳을 대상으로, 공무원, 중간지원 조직, 실무자 등 18명을 심층 인터뷰하였다. 연구내용은 첫째, 마을관리소의 다양한 역할을 살펴보고, 지역 사회서비스로 확장한 우수 사례를 조사한다. 둘째, 마을관리소의 역할이 확대되는 요소를 탐색한다. 셋째, 마을관리소 역할 확대 요소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지역 사회서비스 활성화 패러다임을 도출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마을관리소 우수 사례를 통해 사회서비스의 혁신적인 실험을 관찰하고, 이를 통해 지역 사회서비스 활성화 패러다임을 분석하여 지역 사회서비스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1. 지역 사회서비스의 과제

사회서비스는 사회보장 체계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의 사회서비스는 모든 국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며,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포함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1호). 한국 사회는 2000년대 이후 산업구조 변화와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사회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대상도 취약계층에서 일반인으로 확대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김보영, 2019:45; 오단이, 2020:313). 특히 1인 가구의 증가 등 가족 구조의 변화는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이는 사회서비스의 확장성을 시사한다(김보영, 2019:9).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재정 지원의 정당성은 사회서비스 공급을 통해 사회 전체가 비용 대비 더 큰 효용을 얻을 수 있다는 전제에서 비롯된다. 사회서비스는 사회 구성원들이 가진 다양한 욕구 중에서 '사회적' 차원에서 충족되어야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서비스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시점에서 배제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인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김은정, 2020:215). 따라서 사회서비스는 실질적으로 다수의 인구가 처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접근성이 높아야 하며, 이는 일상생활의 복지증진 효과로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김은정, 2020:221). 이러한 사회서비스의 특성은 사회서비스 정책이 인구집단과 지역 간 사회서비스의 격차를 감소시키고, 이용자들의 접근성(accessibility)을 높이는 것을 과제로 만들었다(주현정 & 김용득, 2018; 김은정, 2020:216). 사회서비스의 공급과 소비는 생활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지역 주민의 생활공간에서 사회서비스 이용할 권리의 보장은 주민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책임성이 강화된 결과이다(안수란 외 10인, 2021:58).

그런데도, 현재 한국의 사회서비스는 수요의 확장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우선 정책으로 인해 일반 국민의 경험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박세경, 2020:64). 특히, 공공의 사회서비스는 기계적인 기준으로 수급 기준을 엄격히 따지는 비효율을 발생시킨다(김보영, 2019:47). 의료 및 사회서비스의 공공재정 지원은 상충하는 요구와 자원 제약으로 인해 사회서비스의 생산과 전달체계의 혁신이 요구된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도 2005년 참여정부 시절부터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사회서비스에 주목하면서 사회서비스의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집중하였다(유태균, 2018:1). 참여정부는 '비전 2030'을 통해 사회서비스 부문의 사회적 일

자리 비중을 2005년 13.1%에서 2030년에는 25%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정부·민간합동작업단, 2006:101). ‘제2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사회서비스 혁신방안(2020)’에 따르면,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2017년 1.5만 개에서 2018년 4.1만 개로 증가하였으며,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9.3만 개가 추가되었다(관계부처합동, 2020:3). 또한 ‘돌봄분야 사회서비스 확충과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품질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회서비스 혁신방안’ 세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20). 첫째,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양성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내실화 등을 통한 사회서비스 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둘째,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의 서비스 확충, 셋째, 제공인력의 관리와 종사자 근로조건과 처우 개선을 통한 품질 강화 등이다. 이는 사회서비스 정책 방향이 기존의 가족·저소득층·필수 욕구 중심의 분절적 서비스 제공에서 사회적 돌봄 강화와 서비스 대상 확대, 다층적 욕구에 관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사회서비스의 정책이 양적 확대와 지역별 격차, 시설과 대면 서비스 차원의 질적 향상과 지역별 균형발전, 지역사회 중심, 비대면 서비스 등의 인프라 보강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일자리 측면에서 양적인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적 향상에 주목하는 것이 특징이다.

2022년 새로 출범한 정부도 사회서비스 영역에 관한 핵심적인 국정과제를 발표하였다. 대표적으로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 서비스 고도화’로, 다양한 공급 주체의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보편적 복지·돌봄 체계를 위해 수요·공급의 확대, 혁신 기반 구축, (종사자) 처우 개선의 세 가지 주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은 고령화와 저출생 등 새로운 사회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동시에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사회서비스 정책의 핵심이 일관됨을 나타낸다. 보편적 사회서비스 수요 확대, 공급 시장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충, 서비스 품질 제고라는 방향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을 보여준다(강은나, 안수란, 이상정, & 이한나, 2023:40).

강은나 외(2023)는 이러한 사회서비스 정책의 일관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정책 성과가 나지 않는 반증이라고 역설한다. 정부는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새로운 사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리려고 노력하지만, 예산 증가 억제와 가격 규제 정책으로 인해 일자리의 질 개선과 사회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제약받고 있다(유태균, 2018:44). 사회지출 중에서도 사회서비스의 수준이 낮고 공적 사회서비스도 부족하여 보편적인 사회서비스 수요와 공급의 원활한 조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강혜규, 2007:6). 또한 돌봄을 중심으로 한 주요 제도의 확대로 사회서비스 산업은 급속히 성장하였으며, 그에 따른 일자리도 증가하였지만, 많은 일자리가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조건을 가지고 있다(강은

나 외, 2023:40). 이러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의 비판은 직장 규모, 근무 시간과 계약 기간, 임금 수준 등의 물리적 근무환경부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형 일자리의 양적 성장에 치중된 정책의 한계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 복지확장이 필요한 상황이며, 사회서비스의 총량을 증가시켜야 하는 과제가 있다. 그러나 건강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 수요의 증가와 공공부문 자원의 제약은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전달체계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지역사회와의 강력한 상호작용,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제3 섹터의 등장은 민간영역의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Vickers et al., 2017:1~2).

2. 마을관리소 현황

기존의 마을관리소 관련 연구는 대부분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¹⁾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종료 후 주민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2019년부터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촉진하였다(박세훈, 2015:19). 이후 2024년 12월 현재 전국에 245개의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2024년 12월). 이들은 주로 공영주차장, 마을 카페, 돌봄 센터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인성환 & 주수원, 2023:6, 17).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은 사업 초기 앵커시설 중심의 지원과 주민조직 형성을 위한 사전 교육 및 사회적경제 조직 설립에 집중하는 반면, 시도 마을관리소는 지역 관리 업무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자를 채용하는 특징이 있다. 경기도의 행복마을관리소, 시흥시의 동네관리소, 전주시의 해피하우스, 부산시의 마을관리사무소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시도 단위 마을관리소를 설립 시기별로 정리하면, 첫 번째, 전주시 해피하우스는 2009년 국토해양부의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한국 최초의 지역관리사무소이다. 이 사무소는 한옥마을 주변의 원도심 지역으로, 건축 제한 등으로 개발이 어려운 단독주택 비율이 6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서수정, 임현성, & 임강륜, 2012:118). 2012년 국토해양부의 시

1)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은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과 공동체 구축을 위해 박근혜 정권 시절부터 시작된 모델로,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담김(김상근 & 서영천, 2023:128). 이후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주민조직의 사업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도시재생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및 공공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박세훈, 2015; 신우진 외, 2016).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의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과 시도 단위 마을관리소를 구분함

범사업 종료 이후, 전주시는 예산을 추가 배정하여 2018년에는 전주시 전역으로 확대하였다. 처음에는 취약계층만 지원하였으나 현재는 일반 가구까지 대상을 확대하였다. 해피하우스는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장소성과 역사성을 지키기 위해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거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서수정 외, 2012:118). 인력은 시설, 전기, 설비, 복지 분야의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행정직영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두 번째, 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는 2014년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 선도구역 5개소를 선정하였다. 주요 사업 내용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의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집수리 서비스와 셀프 집수리 교육, 공구 대여, 무인 택배, 마을 환경 정비 등에 집중하고 자원봉사에 의존한다(중부일보, 2018). 2019년에는 ‘마을주택관리소 종합운영계획’에 따라 자치구와 예산 매칭을 통해 2명 이상의 상근자를 배치하고, 집수리 지원 대상 및 사업 내용을 확대하였다. 마을주택관리소는 2022년에 9개 구·구 30개소로 확대되었으며, 사업비는 1,407백만 원으로, 시비 691백만 원과 구·구비 716백만 원이 투입되었다(행정안전부, 2022:13).

세 번째, 부산광역시 마을지기사무소는 2014년 낙후된 단독주택 지역의 공동주택 유지 관리 서비스와 생활 편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관리사무소장 1명과 수리기사 1명 등 총 2명을 배치하고, 사업 내용은 주택 유지 관리 서비스 및 교육, 공구 대여, 무인 택배 등의 주민 생활 편의 지원 사업과 공공근로 및 종합복지관 사업 연계, 주택 수리 사업자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주민 주도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광범위하다. 2015년 부산시 16개 구·군 중 15개 지역에 최대 50여 개소까지 증가하였으나, 지자체 예산 부담 등으로 점차 폐쇄하여 2024년 1월 기준 12개 구·군 24개만 운영 중이다(부산일보, 2024.08.07.).

네 번째, 경기도 시흥시 동네관리소는 2015년부터 노후 저층 주거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 주민 20인 이상의 운영 주체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접 공간을 발굴하면 시흥시가 공간 리모델링 및 운영비, 사무직원 활동비 등 최소한의 재정 지원과 교육을 지원하는 민관협력 모델로 설계되었다. 동네관리소는 2015년 2개소로 시작하여 2017년에는 11개소로 확산하였고, 민간 위탁을 위해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전환하여 현재 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동네관리소 예산의 대부분은 시비로 충당되며, 사업 내용은 앞서 언급한 다른 지역의 마을관리소와 유사하다. 시흥시 동네관리소의 차별점은 주민 모임이나 주민자치회 등의 주민공동체 조직이 동네관리소 사업을 맡았다는 점이다. 지역에서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을 경험하고 행정과의 소통 경험이 있는 주민조직이 동네관리소 사업에 결합해 대표적인 주민 주도 마을관리소 모델로 발전하였다(김상신, 2019:80~81).

다섯 번째,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성남시 시민순찰대와 시흥시 동네관리소에서 정책적 아이디어를 얻어 2019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되었다. 행복마을관리소는 지역 특성에 따라 안전마을형, 지역재생형, 주민자치형으로 특화되었으며, 지역 순찰, 쓰레기 투기 계도, 공구 대여 등의 공통 사업과 지역별 특화 사업으로 나뉜다. 행복마을관리소는 광역지자체의 주도성이 매우 강한 모델로, 운영 방식에서도 민간 위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안산시가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민간 위탁하여 5개의 행복마을관리소를 운영하였지만, 2023년 1월부터 행정직영으로 전환한 상태이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2024년 3월 기준으로 31개 시·군에 196개소가 운영 중이다(경기데이터드림, 2024.3.21). 사업 초기 10명의 인력을 채용해 2021년 10월 기준, 약 840명의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였다(1개소당 10명 기준).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의 예산은 초기 도비와 시군비 50:50 매칭 사업이며, 사업비에서 인건비의 비중이 높다. 현재 개소당 6명 규모로 축소되었고, 분담 비율도 30:70으로 도비가 줄어들었다(최준규, 박충훈, & 윤소은, 2021:356; 행정안전부, 2022:11).

이렇듯 전국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시도 단위 마을관리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일부 마을관리소에 관한 연구가 있더라도 주로 단일사례 연구에 그쳐, 마을관리소가 수행하는 복합적인 역할을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시흥시 동네관리소, 부산시 마을관리사무소 등의 단일사례연구들이 있지만(최준규, 2019; 최준규 외, 2021; 장윤배, 최준규, & 황선근, 2020; 양금란 & 박준, 2019; 김상신, 2019, 이왕기, 김수연, & 윤혜란, 2017; 신수임 & 김유리, 2019; 박민성, 2015; 김영민, 2018; 서수정 외, 2012), 마을관리소의 다양한 정책적 접근을 비교하고 분석하는 연구는 미비하다. 일부 마을관리소를 시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로 확대하는 연구(최준규, 2019:2)나 부산시 마을관리사무소 마실 사례를 통해 마을공동체 활동으로 확장하는 연구(박민성, 2015; 김영민, 2018)가 있지만, 마을관리소가 지역사회 중심으로 사회서비스를 생산하고 전달하여 민관협력 모델로 확대되는 가능성에 주목하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선정

본 연구는 민관협력 모델로 설계하거나 발전한 마을관리소에 집중하고 역할이 지역 사회서비스로 확대된 우수 사례를 탐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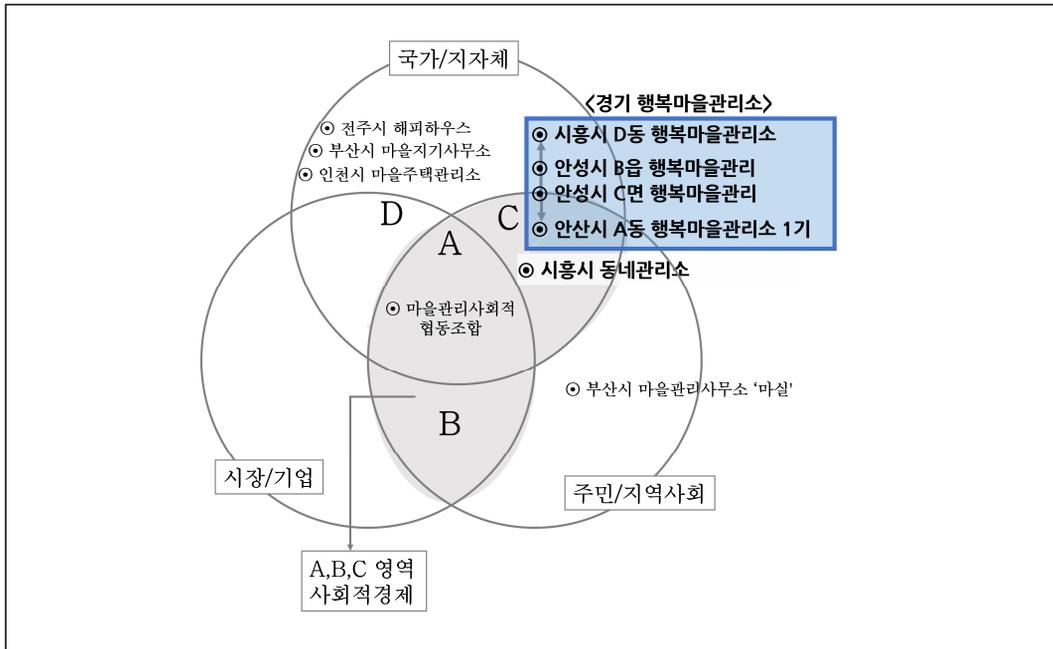
정부혁신 성과를 더 많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19년부터 243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주민생활 불편 해소, 주민편의 증진에 기여한 우수 혁신사례를 선정하여 타 지자체로 확산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경기도 시흥시 '마을공동체 동네관리소'가 공간공유 분야 선도혁신 사례로 선정되었으며, 2020년 민관협업 분야에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사례가 선정되었다. 2021년에는 중점과제 분야로 경기와 부산 마을관리소 조성사업이 혁신사례로 선정되는 등(문광민 & 박석희, 2023:90~91) 마을관리소의 혁신성이 꾸준히 인정받아왔다. 특히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성남시의 성남 시민순찰대와 시흥시의 동네관리소에서 출발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시흥시 동네관리소 사례에 주목하였다. 또한 2021년, 2022년에 경기도 최우수 행복마을관리소로 수상한 안산시와 안성시의 행복마을관리소 2곳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둘째, 민관협력 모델을 선별하기 위해 시도 단위 마을관리소의 유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다양한 마을관리소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시도 단위 마을관리소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장원봉(2011)의 '사회의 핵심운영원리 및 자원 연구'에서 사용한 운영 주체에 따른 구분법을 활용하였다. 장원봉(2011)은 운영 주체를 국가, 시장, 시민사회로 세분화하고, 이들 영역의 중첩 공간의 일부를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정의하였다(장원봉, 2011:26). 이러한 구분법을 마을관리소 유형 분류에 적용해보면,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지자체가 예산, 공간, 채용을 담당하기 때문에 국가 또는 지자체 중심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흥시 D동 행복마을관리소가 대표적으로 이에 해당한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지역특화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이 사업을 기준으로 우수한 마을관리소를 시상하여 장려함으로써 마을관리소의 역할 확대를 촉진하였다. 안성시 C면 행복마을관리소가 대표적이며, 이러한 유형은 국가·지자체와 지역사회의 경계선에 배치하였다. 특히, 안산시 A동 행복마을관리소 1기의 경우 중간지원 조직이 위탁을 받아 지역사회 사회적경제 조직과 비공식적으로 협력한 점을 반영하여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중첩구간인 사회적경제 영역에 배치하였다.

이러한 유형화 기준에 따라 본 연구는 시도 단위 마을관리소 우수 사례 중 민관협력 모델

에 주목하여 시흥시 동네관리소와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안산시 A동, 안성시 B읍과 C면 행복마을관리소, 시흥시 D동 행복마을관리소 사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그림 1〉 마을관리소 운영 주체별 유형 세분화



연구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은 첫째, 마을관리소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자신의 업무에 관한 충분한 경험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하였다. 둘째, 마을관리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협력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인 만큼 공무원과 중간지원 조직 담당자, 실무책임자, 사무원과 지킴이 등을 골고루 선정하였다. 셋째, 마을관리소별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한 자료를 충분히 취합하기 위하여 이론적 포화에 이를 때까지 지역별 최대 6명까지 연구 대상자를 확장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시흥시와 안산시, 안성시 3개 지역에서 마을관리소를 담당하거나 지원했던 공무원 1명과 중간지원 조직 담당자 3명, 7개 마을관리소를 운영하는 실무 책임자와 지킴이, 사무원 14명, 총 18명에 대하여 개별심층인터뷰(IDI: In-depth interview)와 포커스그룹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자 일반적 특성

No.	대상 구분	직위 및 경력	성별	나이	면접일 (2023년)	지역	인터뷰 방식
1	안산 4	실무 책임자	여	50	6/8(목)	경기 안산시 A동 행복마을관리소 1기	IDI
2	안산 2	지킴이	남	50	6/8(목)		IDI
3	안산 3	지킴이	여	40	6/8(목)		IDI
4	안산 5	지킴이	여	50	6/8(목)		FGI
5	안산 6	지킴이	여	50	6/8(목)		
6	안산 1	중간지원	여	40	6/8(목)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IDI
7	안성 2	사무원	여	50	10/5(목)	안성시 B읍 행복마을관리소	IDI
8	안성 4	지킴이	여	60	10/5(목)		FGI
9	안성 5	지킴이	여	60	10/5(목)		
10	안성 6	지킴이	여	50	10/5(목)		
11	안성 1	중간지원	남	40	10/5(목)	안성시 시민활동통합지원센터 (전 C면 행복마을관리소 근무)	IDI
12	안성 3	담당 공무원	여	30	10/5(목)	안성시 시민활동통합지원실	IDI
13	시흥 4	실무 책임자	남	50	6/13(화)	시흥시 D동 행복마을관리소 (동네관리소에서 전환)	IDI
14	시흥 5	사무원	여	50	6/13(화)		IDI
15	시흥 2	실무 책임자	남	50	6/13(화)	시흥시 동네관리소	IDI
16	시흥 3	실무 책임자	남	50	6/13(화)		IDI
17	시흥 6	실무 책임자	여	60	6/13(화)		IDI
18	시흥 1	중간지원	남	50	5/11(목)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IDI

2. 자료 수집 및 분석

1) 근거이론 방법의 채택 이유

본 연구는 근거이론(grounded theory) 방법을 적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근거이론을 방법론적으로 발전시킨 연구자는 1967년 글레이저(Glaser)와 스트라우스(Strauss)로 “질적 코딩의 과정적 체계화”라는 관점에서 가장 정확하고 철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았고(권향원, 2017:18.), 현재까지 근거이론의 이론적 코드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정상원, 2022:229). 근거이론은 연구자의 숙련도에 따라 연구의 질이 결정되며 특정한 모형에 끼워맞추는 연구들이 많다는 한계가 지적되기도 한다(정상원, 2022:229). 그러나, 근거이론은 현장 밀착형 실체이론 도출을 통해 연구자들에게 지속해서 선택받고 있으며, 한국의 정책연구에서 이론과 현실 간의 틈새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연구방

범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 근거이론 방법을 연구 방법으로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거이론은 상징적 상호작용론과 실용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개인과 사회 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이론이다. 상징적 상호작용론과 실용주의는 개인이 사회적 구조를 어떻게 인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전찬영 & 서미아, 2013:242), 마을관리소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주도성과 그것을 형성하는 구조적 요소를 파악하는데 효과적인 연구방법론으로서 근거이론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둘째, 근거이론 방법은 이론적 표본추출, 지속적 비교, 코딩, 관련 자료 메모 등의 과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실체이론(substance theory)을 개발하고 귀납적으로 이론을 발전시키는 질적 연구방법이다(Strauss & Corbin, 1998). 현재 마을관리소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근거이론 방법은 마을관리소 운영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개발하고 마을관리소를 통한 사회서비스 활성화 요소를 연구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근거이론 방법은 주어진 자료에서 연구 문제와 관련된 개념들을 수집하고 적절하게 명명하며, 도출된 범주 간의 연관성과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권향원, 2016:184-185). 이러한 근거이론의 패러다임 분석은 범주들을 구조화하고, 범주들의 관계성을 탐색하는 데 적합하다. 넷째, 근거이론 방법은 행정학 분야에서 조직 및 정책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과정, 행태 및 방법과 같이 객관적 측정이 어려운 영역을 탐구하는 데 높은 활용도를 보인다(권향원 & 최도림, 2011:290). 정리하자면, 본 연구의 목표가 마을관리소의 역할과 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의 혁신체계를 탐색하여 실무적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서 제시한 이유를 들어 근거이론 방법의 적용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근거이론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론적 포화에 이를 때까지 연구 대상을 추가하여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2) 자료 수집 및 분석

근거이론은 이론적 명제를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자료 수집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 수집과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Birks & Mills, 2015:12; Charmaz, 2006:388). 근거이론은 비교와 분석을 통해 자료, 범주, 개념을 추상적인 개념과 이론으로 발전시키는 귀납적 방법이며, 이 과정에서 지속적인 비교와 다듬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코딩 단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근거이론의 목적은 대상 현상의 작동원리나 추상적 이론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현상 이해 분석’을 통해 얻게 되는 직접적인 결과물은 ‘개념’과 ‘범주’다. 근거이론 연구자들은 ‘코드(code)’, ‘개념(concept)’, ‘하위범주(subcategory)’, ‘(상위) 범주(category)’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들이 사용하는 ‘개념’,

‘코드’, ‘범주’라는 용어는 결국 같거나 유사한 것들이다. 중요한 것은 근거이론 방법으로 분석이 진행된다는 것은 낮은 수준에서 점차 더 높은 수준으로 개념이 추상적으로 발전해간다는 것이다(Birks & Mills, 2015:98).

방법론으로서 근거이론의 적용이 쉽지 않은 이유는 연구 과정이 선형적이지 않고, 연구 대상에 관한 이론적 포화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분석 및 코딩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다(권향원 & 최도림, 2011:295). 코딩 과정은 순환적이고 반복적인 자료 비교를 통해 끊임없는 수정과 보완을 거쳐야 한다(Yin, 2011).

스트라우스 & 코빈(1990)은 근거이론 방법에서 코딩의 단계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다(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 김한별, 2018:52~53). 특히 이들은 ‘이론적 표집’과 ‘이론적 포화’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자료 수집 방법과 ‘반복적 비교’ 원리를 기반으로 한 ‘개방코딩(open coding)’, ‘축코딩(axial coding)’, ‘선택코딩(selective coding) 또는 이론적 코딩’의 세 가지 코딩 단계와 이들의 관계를 연결하는 ‘코딩 패러다임’이라는 효과적인 분석 도구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통적인 근거이론 방법을 적용하여 자료 분석은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의 세 단계로 진행되었으며, 지속적인 비교를 통해 범주와 개념을 정제하고 발전시켰다. 개방코딩 단계에서는 자료를 세분화하고, 축코딩 단계에서는 도출된 범주 간의 관계를 파악하였으며, 선택코딩 단계에서는 이야기 윤곽을 파악하여 스토리를 재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주민 주도의 사회서비스 활성화 요소와 패러다임 모형을 탐색하였다.

IV. 지역 사회서비스 활성화 패러다임 분석

근거이론은 질적 자료를 코딩하고, 개념화 및 범주화를 거쳐 이야기(story)를 완성함으로써 중범위 수준의 이론 모형을 구축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 따라 지금까지의 인터뷰 자료의 개념화와 범주화를 통해 근거이론에서 의미하는 분석 작업을 위해 먼저, 개방코딩을 수행하였다. 이후 중심현상을 발견하고, 중심현상을 유발하는 선행요소인 원인 조건을 찾고 어떠한 맥락에서 중심현상이 발견되는지의 맥락 조건과 더불어, 중심현상을 달성하거나 처리하기 위한 전략과 결과를 도출하고, 이 요소들의 관계를 패러다임으로 나타내었다.

1. 개방코딩을 통한 마을관리소 역할 확대 요소 탐색

개방코딩 결과, 나타난 코드들은 모두 232개이며, 이 코드를 묶는 개념은 38개로 수렴되었다. 이러한 개념들은 ‘마을관리소 역할 확대 및 축소’, ‘지역사회 네트워크 결합’, ‘민-관 파트너십 구축’, ‘마을자원 DB 구축’, ‘마을 활동 경력자 채용’, ‘지자체의 정책 혁신 의지’, ‘중간 지원 조직의 지원’, ‘사회적경제 조직역량’,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 ‘행정의 경직성(유연성 필요)’, ‘체계적인 조직 운영 및 관리’, 마지막으로 ‘활동의 보람과 주민의 역량 강화’의 12개의 요소로 범주화하였다.

〈표 2〉 개방코딩을 통한 마을관리소의 역할에 관한 범주화 결과²⁾

인터뷰 내용 요약	개념	범주
마을관리소는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역 밀착형 운영으로 주민과 소통하며, 정서적 돌봄도 지원함	역할 다양화	마을관리소 역할 확대 및 축소
집수리부터 정기적인 전화 안부 등의 정서적 돌봄 지원	통합돌봄	
어르신 대상 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가정방문으로 서비스 접근성 향상	수요자 중심 맞춤 서비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	복지 사각지대 발굴	
간단한 집수리 신청에 즉각적인 방문 서비스 제공	효과적 서비스 전달	
폐의자 활용, 폐건전지 함 설치 등 다양한 환경 개선 프로젝트 진행	지역사회 문제 해결	
주민자치회와의 관계 설정에서 역량 부족과 사업중복 문제 존재	관계 설정의 어려움	
행정의 실적 중심 지원이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함	행정의 이해 부족	
단순한 쓰레기 줍기 활동이 공공근로와 차별화되지 않음	공공근로 수준의 업무매뉴얼의 한계	
일부 주민들이 마을관리소 일에 대해 오해하거나 악용하는 민원 발생	지킴이 업무에 오해	
행복마을관리소는 지역의 관계기관과의 연계가 중요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사업 진행이 가능	지역사회 네트워크 결합	민-관 파트너십 구축
센터장과 동장이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소통함	민-관 소통 창구	
민관협력 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역할 부여가 중요함	민-관의 역할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동네관리소 공간을 발굴하고 스스로 관리함	민간의 공간발굴 및 관리	
초기 단계에서 당사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줄임	마을 어르신 DB 구축	마을자원 DB 구축
활동 역량에 기반한 지역 주민을 지킴이로 우선 채용함으로써 마을관리소 업무가 확대될 수 있었음	마을 활동 경력자 채용	

2) 원 데이터의 분량이 많아, 연구자가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함

인터뷰 내용 요약	개념	범주
마을관리소 업무와 지역사회 고용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민간 위탁을 통해 지속할 수 있는 사업 체계를 갖춘	민간 위탁에 관한 행정 혁신	행정의 정책적 혁신 의지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한 주민조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지역 문제 해결 의견 수렴	사업의 재량 및 자율권	
동네관리소를 사회적경제 법인으로 전환하고 위탁하여 사업 범위와 규모 확대를 촉진함	정책적 실험과 적극적 확산	
민간 위탁을 하되, 최소한의 행정 개입과 재정 지원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행정의 최소한의 개입과 지원 원칙	
안정적인 마을관리소 운영을 위한 중간지원 조직의 정책 제안 및 실현	중간지원 조직의 정책 제안 및 지원	중간지원 조직의 지원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킴이의 역량 강화	중간지원 조직의 교육지원	
민간 위탁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지속할 수 있는 운영 실현	마을기업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량
마을기업의 역량에 따라 활동이 확장되고 창의적 아이디어와 문제 해결 방안 모색	마을기업의 교육 역량	
주민 주도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회서비스 위탁을 위한 경쟁력 강화 노력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
회계의 투명성과 전문인력 확보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봉사 활동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 조성 필요	사회적경제 경쟁력 확보	
마을기업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킴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과 멤버십 형성	사회적경제 중심 좋은 일자리	
행정은 공공사무 위탁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민원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보신주의로 평가	소극적 행정	행정의 경직성(유연성 필요)
행정은 평가방식의 한계와 다양한 네트워크와의 협력과 신속한 대응이 어려움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주의의	
공공형 일자리 정책은 확장된 마을관리소 모델에 부적합함	공공형 노인 일자리의 한계	
동네관리소 운영 시 갈등에 대한 관리 문제 발생	역할 갈등	
동네관리소 효과적인 조직 운영체계의 필요성	현장에 적합한 조직관리 체계	체계적인 조직 운영 및 관리
지킴이들은 재활동 교육을 받고, 탄소 중립 캠페인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음	환경문제 교육 및 실천	활동의 보람과 주민의 역량 강화
마을관리소를 통해 지킴이들의 직업 소양 및 갈등관리 역량 강화, 마을사업 기획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을 진행	다양한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마을관리소를 통해 전문성을 키우고 자격증을 취득하며, 좋은 기억을 바탕으로 현재 요양원 근무로 이어짐	개인의 성장과 직업훈련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는 중요한 복지로, 지역 내 의미 있는 일자리가 정주율을 높일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근무환경이 필요함	지속 가능한 좋은 지역 일자리	

인터뷰 내용 요약	개념	범주
마을관리소 업무를 통해 공공 일자리에서 자긍심을 느끼며 긍정적인 변화를 주변에 전파하고 있음	일을 통한 회복과 보람	
마을 문제를 해결하고 자존감을 높이며, 민간과 행정의 역할 차이를 이해하는 등 활동가로 성장	시민 활동가로의 성장	

2. 축코딩을 통한 지역 사회서비스 활성화 패러다임 분석

지역 사회서비스 활성화 패러다임을 탐색하기 위해 앞서 개방코딩에서 도출한 마을관리소 역할을 확대하는 요소들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각각의 범주를 축코딩에 단순 대입하거나 나열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 자료에 근거한 추론과 현상에 관한 가정을 수없이 반복하였다. 또한, 관찰한 사실을 토대로 해당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하는 최선의 가설을 최종적으로 채택하여 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명제(한유리, 2018:114)를 만드는 데 집중하였다. 먼저, 마을관리소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지역 주민들은 쓰레기 수거, 주거환경 개선, 노인 돌봄 및 정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복합적인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발전하였다. 예를 들어, 안산시 A동 행복마을관리소 1기는 쓰레기 수거를 넘어 마을 정원을 조성하고 관리함으로써 지역 환경을 개선하였고, 안성시 C면 행복마을관리소는 다문화가정과의 긍정적인 만남을 위한 축제를 개최하여 지역사회의 유대감을 증진했다. 또한, 시흥시 동네관리소는 방과 후 돌봄과 텃밭 가꾸기를 통해 돌봄 공백을 줄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역할이 확대되었다.

〈표 3〉 (중심)현상의 범주화

패러다임	범주	개념
(중심)현상	마을관리소 역할 확대 및 축소	마을관리소 역할 다양화
		집수리와 정서 돌봄 종합 지원
		수요자 중심의 생활 맞춤 서비스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지역 사회서비스 효과적 전달
		지역사회 문제 해결
		관계 설정의 어려움
		마을관리소 역할에 관한 행정의 이해 부족
		공공근로 수준의 업무매뉴얼의 한계
		마을관리소에 관한 오해와 이해

이러한 마을관리소의 역할 확대는 여러 인과적 조건에 의해 가능해졌다. 첫째, 지역사회 네트워크와의 긴밀한 연계가 이루어져, 지역 상점가, 복지 관련 기관, 종교단체 등과 협력하였다. 안산시 A동 행복마을관리소 1기의 경우, 마을기업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하여 사업영역과 내용,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다. 둘째, 민-관 협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시흥시 동네관리소는 주민센터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기초생활 수급자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들에게 마을관리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홍보하였다. 그러나 시흥시 D동 행복마을관리소는 민-관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주민단체가 운영을 포기하고 주민센터로 이관하였다. 셋째, 마을활동 경력자 채용과 마을 DB 구축 등 지역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안산시 A동 행복마을관리소 1기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이 거주하는 500개 이상의 가구 DB를 취합하여 코로나19 시기 정서 지원을 위한 전화상담에 활용함으로써 마을관리소의 역할을 확대하는 주요한 요건으로 작용하였다.

〈표 4〉 인과적 조건의 범주화

패러다임	범주	개념
인과적 조건	지역사회 네트워크 결합	지역사회 네트워크 결합
	민-관 파트너십 구축	민-관 소통 창구
		민-관의 역할에 대해 이해
		민간의 공간발굴 및 관리 경험
	마을 어르신 DB 구축	마을 어르신 DB 구축
마을 활동 경력자 채용	마을 활동 경력자 채용	

마을관리소의 역할 변화는 행정의 정책적 혁신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시흥시 동네관리소는 청소용역 등 공공사무를 지역 기반의 사회적경제 조직에 위탁하여 지속 가능한 운영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중간지원 조직의 참여를 통해 구체화하였으며, 안산시도 사업 초기 사회적경제 조직이 행복마을관리소를 위탁함으로써 지역사회 조직과 협력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이처럼 행정의 다양한 실험과 지원, 중간지원 조직의 역할은 마을관리소의 성장을 촉진하는 주요한 맥락적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표 5〉 맥락적 조건의 범주화

패러다임	범주	개념
맥락적 조건	지자체의 정책적 혁신 의지	민간 위탁에 관한 행정 혁신
		사업 내용의 재량 및 자율권

패러다임	범주	개념
		정책적 실험과 적극적 확산
		행정 최소한의 개입과 지원 원칙
	중간지원 조직의 지원	중간지원 조직의 사업 방향 제안
		중간지원 조직의 교육 지원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량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업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의 교육 인프라 역량

마을관리소 역할이 확대되는데 필요한 전략은, 첫째, 사회적경제 조직의 주도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둘째, 행정의 유연성이 중요하다. 정기적인 소통 체계는 행정이 마을관리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체계적인 조직 운영 및 관리가 필요하다. 안정적인 조직과 리더십은 마을관리소의 효과성을 높이고 갈등을 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예를 들어, 안성시 B읍 행복마을관리소는 지킴이와 사무원 간의 역할 분담이 명료하지 못하여 갈등이 발생하는 등 체계적인 조직 체계의 중요성이 관찰되었다.

〈표 6〉 전략(작용/상호작용)의 범주화

패러다임	범주	개념
전략 (작용/ 상호작용)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모색
		사회적경제 경쟁력 확보 방안
		사회적경제 중심의 좋은 지역 일자리 창출
	행정기관의 경직성과 유연성	무사고 안일주의와 소극적 행정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
		공공형 노인 일자리의 한계
	체계적인 조직 운영 및 관리	업무별 역할에 관한 이해와 갈등관리
		현장에 적합한 조직관리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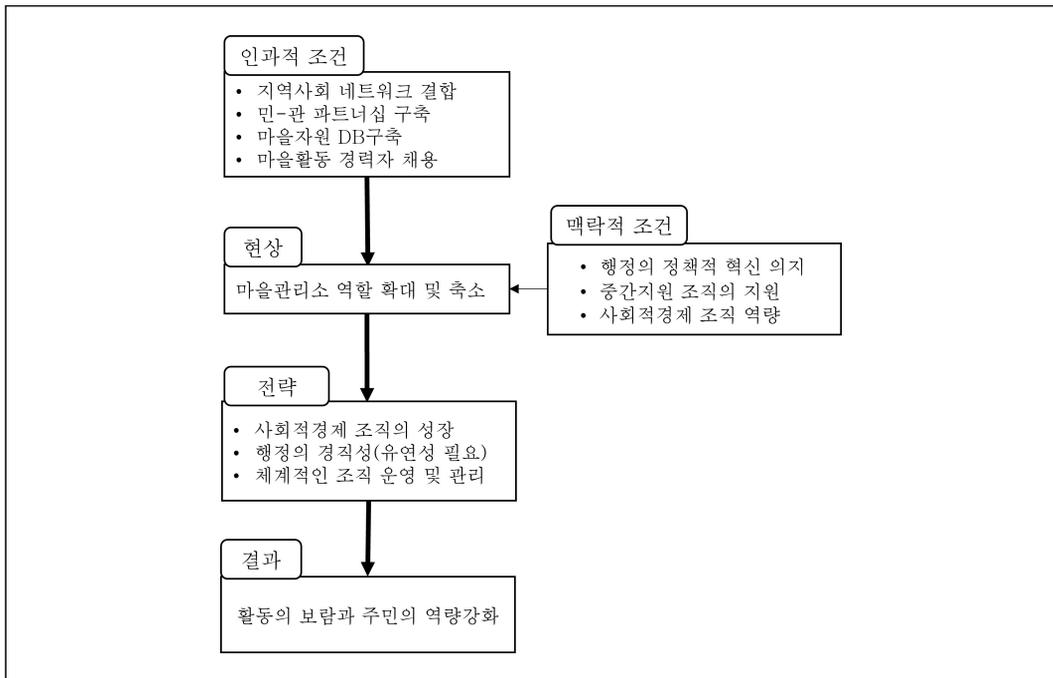
이러한 전략들은 마을관리소의 역할이 확대되는데 필수적이며, 이러한 경험은 결과적으로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큰 보람과 역량 강화를 가져왔다. 안산시 A동의 지킴이들은 마을 활동을 통해 주민자치 역량을 키우고, 다양한 지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으로 성장하였다. 안성시 B읍 행복마을관리소의 지킴이들은 친환경 캠페인과 가정방문을 통해 돌봄 공백을 메운 경험에 자긍심을 보였다. 시흥시 동네관리소 운영진은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주민들의 변화를 직접 경험하며 보람을 느꼈다. 이러한 경험은 주민들이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 활동의 보람을 느끼며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게 하였다.

〈표 7〉 결과의 범주화

패러다임	범주	개념
결과	활동의 보람과 주민의 역량 강화	환경문제 교육 및 실천
		다양한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개인의 성장과 직업훈련
		지속 가능한 좋은 지역 일자리
		일을 통한 회복과 일에 관한 보람
		시민 활동가로의 성장

분석과정에서 나타난 마을관리소의 역할이 확대되거나 축소되는 데 연관된 요소들의 관계를 통해 지역 사회서비스를 활성화하는 패러다임을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지역 사회서비스 활성화 패러다임(축코당)



3. 지역 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이야기 재구성(story line)

마을관리소는 단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넘어, 주민들이 지역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플랫폼으로 확대되면서, 주민들이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색하는 창구가 되었다. 본 연구는 마을관리소가 이렇듯 지역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 확대되는 과정과 그 배경을 분석하였다. 참여자들은 마을관리소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직접 만나며, 그들이 겪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주민들은 쓰레기 문제, 주거환경 개선, 노인 돌봄과 정서적 지원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요구는 단순한 서비스 제공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고, 필요할 때는 스스로 학습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마을관리소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여러 중요한 조건이 있었다. 첫째,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결합이다. 연구 대상자들은 지역 상점가, 복지기관, 주민자치회 등과의 긴밀한 협력이 마을관리소 성공의 결정적 요인이었다. 예를 들어, 안산시 A동 행복마을관리소 1기는 마을기업 및 지역 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하여 주민들의 요구에 맞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주민들이 서로 연결되고, 지역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둘째, 민-관 파트너십의 구축이다. 시흥시 동네관리소는 주민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기초생활 수급자를 확인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들에게 마을관리소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이러한 협력은 주민들이 필요한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마을관리소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셋째, 마을 활동 경력자 채용과 마을 DB 구축이다. 안산시 A동 행복마을관리소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구에 대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주민들이 서로를 돌보고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마을 DB 구축은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파악하고, 더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마을관리소가 지역 사회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역할로 확대되는 데에는 행정의 정책적 혁신 의지, 중간지원 조직의 지원, 그리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량이 큰 영향을 미쳤다. 지자체의 정책적 혁신은 마을관리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중간지원 조직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지원 및 행정의 혁신을 촉진하는 주체가 되기도 하였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는 주민들이 다양한 문제를 주도적이면서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능동적으로 마을관리소의 역할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였다. 사업전환 또는 종료 이후에도 관계를 유지하며 새로운 사회서비스 생산 및 전달의 주체로 성장하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결과적으로, 마을관리소의 운영은 주민들에게 큰 보람과 역량 강화를 가져왔다. 연구 조사 대상자들은 마을관리소를 통해 얻은 경험이 주민자치 역량을 키우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보람을 느꼈다. 이러한 과정은 행정과 중간지원 조직, 주민과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상호작용하는 민관협력 모델이 지역 사회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데 필수적이며,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보람과 역량 강화에 도달할 때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V. 결론

본 연구는 근거이론 방법을 적용하여 마을관리소의 역할이 확대되는 요소를 탐구하고, 이를 통해 지역 사회서비스가 활성화되는 패러다임을 모색하였다. 연구 대상은 경기 행복마을 관리소와 경기도 시흥시 동네관리소를 포함한 총 7곳으로, 공무원, 중간지원 조직 담당자, 마을관리소 실무 책임자와 지킴이, 사무원 등 18명을 심층 인터뷰하였다.

자료 분석에서는 근거이론의 개방코딩 방법을 활용하여 마을관리소의 역할이 확대되는 데 영향을 미친 12개의 주요 개념을 범주화하였다. 2차로 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중심현상 ‘마을관리소 역할의 확대 및 축소’을 도출하였다. 인과적 조건으로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결합’, ‘민-관 파트너십 구축’, ‘마을자원 DB 구축’, ‘마을활동 경력자 채용’이 확인되었고,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조건으로는 ‘행정의 정책적 혁신 의지’, ‘중간지원 조직의 지원’,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량’이 작용한 것을 확인하였다. 마을관리소의 역할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전략으로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 ‘행정의 유연성’, ‘체계적인 조직 운영 및 관리’가 도출되었으며, 이러한 작용/상호작용의 결과로 ‘활동의 보람과 주민의 역량 강화’가 나타나는 패러다임 모형을 완성하였다.

마을관리소는 민관협력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맞춤형 돌봄 및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지역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하였다. 주민들은 환경 정비, 방법, 돌봄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문제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수혜자를 넘어 돌봄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마을관리소는 주민의 일자리와 사회참여 기회를 창출하여, 단순한 공공 일자리를 넘어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역량 강화가 가능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

다. 이는 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이 일자리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양질의 지역 사회서비스로 발전한다(안수란 외, 2021:33)는 기존 연구를 뒷받침한다. 이는 마을관리소가 지역 사회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사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공공성 강화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례임을 보여준다. 또한, 지역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얻는 보람과 만족이 주민의 역량 강화에 중요한 요소라는 점(천재영, 2017)도 본 연구를 통해 재확인하였다. 특히, 마을관리소의 역할이 다양한 사회서비스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정부가 2020년 발표한 ‘돌봄분야 사회서비스 확충 및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사회서비스 혁신방안’의 세 가지 방향과도 일치한다. 첫째,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양성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은 마을관리소 사례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둘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의 확충은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셋째, 제공인력의 관리와 근로조건 개선을 통한 품질 강화의 중요성은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의 양질의 일자리 정책과 시흥 동네관리소의 민간 위탁을 통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안정적 운영 정책 등에서도 확인되었다. 무엇보다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전달체계의 혁신은 지역사회와의 강력한 상호작용,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제3 섹터의 등장 등 민간영역의 참여를 촉진한다는 주장은(Vickers et al., 2017:1~2) 마을관리소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우수 사례에서도 나타났다. 즉,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양성과 함께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창출 및 내실화는 지역 주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사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지역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품질을 향상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마을관리소가 지역 사회서비스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이를 위해 행정의 정책 혁신과 중간지원 조직의 지원, 그리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량 강화를 통한 민-관 협력 체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지역 사회서비스의 최종 목표는 돌봄 당사자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 모두가 참여 기회를 얻음으로써 보람과 성장을 경험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며, 이는 행정의 유연성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을 통한 체계적인 조직 운영 및 관리가 이루어질 때 촉진될 수 있음이 본 연구의 주요한 시사점이다.

한편, 같은 제도 안에서도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다양한 마을관리소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모델을 채택한 시흥시 동네관리소와 광역적 제도적 지원을 바탕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를 비교하였다. 이들의 제도적 차이와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이들 마을관리소 사례를 통해 지역 사회서비스 활성화 요소를 일반화할 수 있는지는 향후 연구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런데도, 두 지역의 제도는 공통으로 민관협력 모델로 설계되었으며, 우수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지역 사회서비스 활성화 요소를 살펴보는 데 유의미한 연구 대상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마을관리소의 다양한 역할 확대에 주목하여 지역 사회서비스에서 민관협력 모델의 중요성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제도를 포함하여 마을관리소의 운영모델과 그 효과를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강은나·안수란·이상정·이하나. (2023). 2023 년 사회서비스 정책의 전망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2023(1): 40-62.
- 강혜규. (2007). 한국 사회서비스 정책의 현황과 서비스 확충의 과제. 「보건복지포럼」, 2007(3): 6-22.
- 권향원. (2016). 근거이론의 수행방법에 대한 이해: 실천적 가이드라인과 이론적 쟁점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2), 181-216.
- 권향원. (2017). 행정이론의 한국화를 위한 연구방법 및 이론화 전략: 보편성과 특수성의 이분법적 흑백논리의 극복. 「한국행정학보」, 51(2): 1-31.
- 권향원·최도림. (2011). 근거이론적 방법의 이론화 논리에 대한 이해: 한국행정학의 비맥락성과 방법론적 편향성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5(1): 275-302.
- 김보영. (2019). 구호뿐인 공공성? 문재인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 평가와 대안 모색. 「비판사회정책」, 64: 7-52.
- 김상근·서영천. (2023). 도시재생의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활성화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 41(1), 통권 67호: 127-140.
- 김상신. (2019). 시흥, 주민 주도 도시재생 추진사례와 방향. 「국토」, 80-87.
- 김영민. (2018). 사회변화와 대안가족: 협동조합을 기반으로. 「월간 복지동향」, (232): 32-40.
- 김은정. (2020). 사회서비스 선택가능성과 접근성이 서비스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서비스 유형별 차이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4(4): 213-238.
- 문광민·박석희. (2023). 지방정부의 정책혁신 확산을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34(1): 81-111.
- 박민성. (2015). 작은 복지관, 작은 보건소, 작은 주민자치센터 마을관리사무소 '마실'에서 답을 찾아본다. 「월간 복지동향」, (197): 32-37.
- 박세경. (2020). 사회서비스 정책의 전망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2020(1), 49-65.
- 박세훈. (2015). 도시재생 동력으로서의 사회적 경제: 운영실태와 과제. 「국토」, 18-25.
- 서수정·임현성·임강륜. (2012). 해피하우스 시범사업 사례분석을 통한 주거지재생 방안 연구. 「서울도시연구」, 13(4): 113-131.
- 신수임·김유리. (2019). 마을관리를 통한 저층주거지 재생 방안 연구: 주문진 등대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 학술대회논문집」, 31(1): 167-170.
- 안수란·김동진·김은정·어유경·오욱찬·이상정·권정현·김지연·노법래·최효미·이주민. (2021). 「미

- 래 사회서비스 일자리 발굴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2021-022.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351000-202100227>
- 양금란·박준. (2019). 노후 저층주거지 관리를 위한 중간지원 조직 연구: 시흥시 동네관리소 사례를 중심으로. 「국토연구」, 75-95.
- 오단이. (2020).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회서비스 진입에 관한 연구. 「NGO 연구」, 15(3): 305-341.
- 유태균. (2018). 사회서비스 10 년 경험을 통해 본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의 과제. 「사회복지연구」, 49(1): 29-50.
- 유기웅·정종원·김영석·김한별. (2018). 「질적 연구 방법의 이해(개정판 2판)(양장본 Hardcover)». 서울: 박영스토리.
- 이재경·김태우. (2020). 「서울시 마을관리소 운영체계 모델화」. 서울: 삼양로컬랩 사회적협동조합.
- 이왕기·김수연·윤혜란. (2017). 인천시 마을주택관리소 운영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30(2): 51-70.
- 인성환·주수원. (2023).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따라하기: 설립부터 운영까지」. 서울: 좋은땅.
- 장원봉. (2011). 복지사회의 이행전략으로써 사회적 경제의 가능성에 관한 탐색. 「생협평론」, 2011 가을(4호).
- 장운백·최준규·황선근. (2020). 「경기도내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방안」. 정책연구, 1-133.
- 전찬영·서미아. (2013). 중증장애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의 삶의 과정에 대한 근거이론적 접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4): 239-249.
- 정상원. (2022). 교육과정과 수업에서의 근거이론 연구를 위한 이론적 코드 탐색.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10(3): 215-241.
- 주현정·김용득. (2018). 공공성 담론으로 보는 돌봄서비스: 상호의존의 조직화와 공동생산 제안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0(2): 233-262.
- 천재영. (2017). 「사회서비스 품질 측정모형 개발: 공익형 노인일자리 서비스의 사회품질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정책전공.
- 최준규. (2019). 시민서비스 기반 공익적 일자리 창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이슈 & 진단」, 1-24.
- 최준규·박충훈·윤소은. (2021).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성과 분석 및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정책연구, 1-140.
- 행정안전부. (2021). 동네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 담당하는 '마을관리소' 생긴다. 보도자료.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08&nttId=84830#none
- 행정안전부. (2022). 「2022년 『마을관리소 조성사업』 공모계획」. https://www.bukgu.ulsan.kr/direct_download.do?path=/upload/editor&file_nm=fee9988b-1068-4ec4-b7f2-5395e00c7f72.hwp&rfile_nm=22%EB%85%84%20%EB%A7%

88%EC%9D%84%EA%B4%80%EB%A6%AC%EC%86%8C%20%EA%B3%B5%EB%AA%A8%EA%B3%84%ED%9A%8D.hwp

국외 문헌

- Birks, M., & Mills, J. (2015). *Grounded theory: A practical guide*, Sage, (2nd ed.), 근거이론의 실천(2015). 공은숙·이정덕 공역, 서울 : 정담미디어 : 학지사.
- Charmaz, K. (2006). *Constructing grounded theory: A practical guide through qualitative analysis*, sage, 「근거이론의 구성 : 질적 분석의 실천 지침」(2013). 박현선, 이상균, 이채원 공역, 서울 : 학지사.
- Strauss, A. & Corbin, J.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Sage publications, 13(1): 3-21.
- Strauss, A. L.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2nd Ed.).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Vickers, I., Lyon, F., Sepulveda, L., & McMullin, C. (2017). Public service innovation and multiple institutional logics: The case of hybrid social enterprise providers of health and wellbeing. *Research Policy*, 46(10): 1755-1768.
- Yin, R. K. (2011). *Qualitative Research from start to finish*, 박지연·이숙향·김남희 공역 (2013). 「질적 연구: 시작부터 완성까지」, 학지사.

기타 참고자료

- 경기데이터드림(데이터기준일자 2024.3.21). 행복마을 관리소 현황. <https://data.gg.go.kr/portal/data/service/selectServicePage.do?infId=4MJMZ1HYW8VJZXHQJMK630605765&infSeq=1>
- 경인매일. (등록 2022.11.01). 안산시 일동 행복마을관리소, 2년 연속 경기도 최우수상 선정. <https://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71520>(검색일: 2024.11.10.).
- 관계부처합동. (2020.12.28). 「사회서비스 혁신방안(2020)」 사회관계장관회의. <https://blog.naver.com/moeblog/222187725647>(검색 2024.11.10).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현황. <https://www.city.go.kr/portal/business/vilmgrcoop/center/list.do>(검색일: 2024.11.10).
- 부산일보. (등록 2024.08.07). ‘동네 맥가이버’ 마을지기사무소 운영 계속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283068?sid=102>(검색 2024.11.10)

정부·민간 합동작업단. (2006). 「함께가는 희망한국 VISION 2030」.

<https://nsp.nanet.go.kr/plan/subject/detail.do?nationalPlanControlNo=PLAN0000030321>(2024.11.10)

중부일보. (등록 2018.11.22). 인천 마을주택관리소와 택배보관소 구분 모호.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5325>(검색일: 2024.11.10)

신 수 경: 한신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2024년 정책학 박사(마을관리소를 통한 사회서비스 혁신체계 연구: 근거 이론적 방법을 중심으로)를 취득하고, 현재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하는 활동가이다. 관심 분야는 주민자치, 지역사회 발전, 사회적경제, 커먼즈, 커뮤니티케어 등이다. 주요 논저로는 “자산기반 지역사회 발전 (ABCD) 모델을 적용한 주민자치회 활성화방안 연구: 안산 일동을 중심으로(2023)”, “전국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제 운용 실태 및 실효성 연구: 쿼터제를 중심으로(2023)”, “주민자치회 전환에 대한 인식 유형-Q 방법론의 적용(2022)”, “서울형 주민자치회 임원 구성에 관한 연구(2021)”와 「포틀랜드, 로컬과 혁신이 만나는 도시(2021, 공저)」 등의 저서가 있다(shra10003@hs.ac.kr).

이 상 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2001년 행정학 박사(물이용을 둘러싼 환경갈등의 담론분석 :위천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갈등사례를 중심으로)를 취득하고, 현재 한신대학교 평화교양대학에 재직 중이며 동 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를 겸하고 있다. 관심 분야는 정치생태학, 도시커먼즈, 기후위기와 탈성장 등이다. 주요 논저로는 “한국의 '탈성장 도시 이데올로기' 형성을 위한 개념적 고찰-에너지 공간의 생산을 중심으로”, “한국의 미세먼지 정치화의 정치생태학적 해석국가의 '프레이밍 전략' 비판을 중심으로(2021)”,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녹색 전환 정책(2020)”, “녹색성장 경관의 생산과 소비 - 4대강 살리기 사업 홍보 동영상 분석을 중심으로(2019)” 등이 있다(ttochi65@hs.ac.kr).